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부처님의 재가 여성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오장설 이외에 팔경계법이 있다. 초기 불전에서는 오장설에 의거하여 비구니팔경계법을 피력한다. <중아함경> 제28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계율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비구에 의해 통솔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보름마다 포살법회를 열게 되어 있는 데 그때 비구니는 계본을 읽으며 포살법회를 주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는 비구니 거주처에 비구가 없으면 안거를 할 수 없다. 넷째 비구니는 안거를 마치면 양부중에서 세 번 청하여 보고, 듣고,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만일 비구가 비구니의 질문을 듣지 않으면 비구니는 비구에게 경율론을 질문할 수 없다. 여섯째 비구니는 비구의 범계(犯戒)를 말할 수 없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범계를 말할 수 있다. 일곱째 비구니가 만일 승가파시사를 범하면 마땅히 양부중 가운데서 보름간 근신해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지 백년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공경 합장하고 물어야 한다.

이상의 팔경계법은 현재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구니가 비구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은 다섯 가지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경계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초일명삼매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비구계 내지 비구니계를 받더라도 문화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북방 불교권에서 계율에 대한 반성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사분율>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승불교가 부정하고 비판한 것이 부파불교의 권위화, 절대화, 탈대중화, 전문화였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문헌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에서까지 아무런 반성과 비판도 없이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의 현대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교가 지니고 있는 평등정신을 탈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전근대적인 사고가 엄연히 불경 안에 기술되어 있으며, 조계종단 안에서는 불문율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것의 부당함이나 모순을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가 여성 신도들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변하고자 한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재가 여성들에 대해 페미니스트에 가까울 정도다.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지트왕비인 말리카(승만)가 여자 아이로 태어났을 적에 왕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대왕이여, 부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남자 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계율을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에게 충실합니다.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 영웅이 되고, 지상의 주인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상은 장부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선생경>에서는 부부간의 윤리가 설해져 있는데 각각 다섯 가지의 의무사항을 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아비들은 지어미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하며, 인격적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동시에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불교라는 점에서 성의 사회적 역할은 인정하되 인격적 차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부아함경·선생경 여성인격 존중

"진리엔 남·녀 차별이 없음을 알라"

<별역잡아함경> 제12에는 소마비구니와 마왕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 당시의 여성관을 알려주고 있다. 마왕이 소마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인의 경지는 높고 아득해 오르기 어렵거늘 그대의 어리석은 지혜로 어떻게 얻으려 하는가?" 이에 소마 비구니는 "여자라는 생각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뜻을 두어/ 위없는 가르침을 살필 뿐이로다/ 진리에 남녀의 차별이 있다면/ 여자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리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어찌 어렵다고 말하리오/ 모든 애착을 끊고 무명의 어둠을 없애버리면/ 번뇌 없는 법에 머물러 열반을 증득하리니/ 파순아, 그대는 나에게 졌음을 알라."고. 이에 마왕이 항복하고 물러갔다고 경전은 묘사하고 있다.

마왕과 소마비구니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법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오장설과 비구니팔경계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들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은 무엇인가? 엄연히 법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실천 없으면 모든 게 공염불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 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개탄합니다. 그러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안되는 일을 개탄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세상을 자신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온 과정이 다른데 자기 사고의 틀 속에 세상 일을 끼워 맞추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은 문화와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참다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월운스님은 37년여의 역경 작업끝에 <한글대장경>을 완간했다.

'왜 불교공부 해야 하나'를 자녀에 가르치고 설득하세요

한국불교 이것은 고쳐야 한다

제각각 법요식 통일…마음도 하나돼야

천도재를 사찰 수입수단 삼아선 안돼

모든 불자 읽기쉬운 한글경전 보급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아닌, 나 밖의 위대한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대전제하에, 신의 뜻이 '이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각기 영역을 넘나들며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끝없이 개척하고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인 생활방식과 문화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교가 발생했던 인도는 사색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사는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문화적 교류 관계가 있었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이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불교라는 독특한 형태의 불교로 발전시켰습니다. 사상이나 교리상으로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사회적 역할이 없으니까 이제는 좌불안석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 불교에는 고쳐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 하나 고쳐 나가야죠.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부처님 공부도 다 헛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버릴 수는 없지요. 배가 다 파손되고 돛대 하나만 남았다고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불자들은 불교를 제대로 실천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라도 다시 좌표를 정하고 불교를 바로 잡아 나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앎에서 지혜가 나오고, 행이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조화롭게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불교가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또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지요.

이를 위해서 한국 불교가 우선 변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불교의식의 통일입니다. 지금은 절마다 불교의식이 다 달라서,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도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식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으니 뜻도 모르고 따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래서는 불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먼저 의식이 통일돼야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의식 통일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약식으로 할 때가 있고 정식으로 할 때가 있는 거에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한시간 동안 발원문을 하라고 하니 집에서 누가 그걸 하고 있나요. 이런 때 방편이란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한가지 귀신을 달래서 불교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천도재는 교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쓰는 방편이지, 절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처럼 천도재를 방편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다면 불교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다 공염불이 됩니다. 실천이 부족하니까 불교가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리가 좋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도움이 되어야 찾아옵니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고 나눔을 베풀어 나가는 실천을 보일 때 불교는 불교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교리가 빛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자리가 잡혔을 때 명분을 찾게 되는데, 교리가 바로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경에 평생을 바쳐 왔습니다. 요즘엔 한자로 된 경전을 볼 사람이 없어요. 한글로 된 경전도 잘 보지 않는데 한자로 된 경전을 볼 리 없지요. 불교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언어가 장벽이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역경이 필요합니다. 역경은 불자들이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역경 작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불자들의 시주와 학인 스님들의 고생으로 <한글 대장경>을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주가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절절히 알았습니다. 역경을 하면서 불교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힘이 바로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어머니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는가, 내가 왜 불교를 공부하는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설득시켜 보세요. 자녀 손잡고 절에 와서 같이 공양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모자간 또는 모녀간 정을 나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새겨 들었다가 후일 자녀에게 꼭 들려주세요.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마루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감상하는 월운스님.

◇월운스님은 불자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것을 강조한다.

지상 백고좌

월 운 스 님

(봉선사 조실 · 동국역경원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람이 태어나서 다생겁래(多生劫來) 지중한 인연이 있어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었구나. 부모는 자식 걱정에 편할 날 없었건만, 어린 자식들은 부모의 은공을 전혀 몰라 제 욕심만 내세우네. 길거리에서 옷자락만 스쳐가도 오백생의 인연이라 하였는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얼마나 큰 인연이 모였을까.

참사랑은 바른 법을 이르는 말이니, 부부간에 못다한 정을 다하는 길과 자녀에게 못 준 사랑을 전하는 길이 정법에 있구나. 바른 법을 만났으니 참회하는 삶을 살아보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못보던 사랑이 보이고, 가족도 도반같이 정겹고 소중히 느껴진다.

일체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 성품 갖췄건만 까닭없이 무명 일어 번뇌망상 뒤따른다. 번뇌망상 주인인양 앞에 나서 행세하니 본래 부처는 간 데 없고 탐진치만 득실댄다. 삿된 씨앗 심은 곳에 악한 열매가 나니, 그게 바로 윤회란다.

탐진치를 제거하고 몸과 뜻을 간수하여 진구덩이에 안 빠지면 흙 안 묻은 맑은 얼굴이 솟아나고 있었던 본래 부처 보이나니, 이를 일러 부처되는 법이라 한다. 세상만사 모두 내가 주인이니 나의 일을 주관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을 꼭 붙들어 탐진치를 좇지 말고 맑은 정신 간직하면 어디를 가도 현인군자요, 길흉화복 굽이쳐도 태산같이 끝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세상만사 가닥잡기 어려운데 불교를 만나보니 나의 주인이 바로 나요, 한마음이 맑을 때 시방세계가 맑아진다. 이 법 하나 간직하면 여의주를 지닌 듯이 부러움이 없으리라.

<월운스님 지음(요약)>

제자가 말하는 월운 스님

譯經외길 대강백…"한 명 남아도 가르친다"

"월운 큰스님은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가르침을 펴시는 분입니다. 비구 · 비구니, 승 · 속에 구분을 두지 않아요. 특히 역경과 후학을 키우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을 보입니다."

"나는 단 한 명만 남아도 가르친다"는 월운 스님의 한마디를 듣고 10여년을 봉선사에 머무른 비구니 제자인 원민 스님의 말이다. 굳이 원민 스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월운 스님은 역경 외길을 걸어온 대강백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세 되던 1948년,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월운스님은 해인사 대교과를 수료한 이후 통도사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조계종 역경위원, 동국역경원장 등 줄곧 강사와 역경의 길을 걸었다. 2001년에는 37년이라는 인고의 노력 끝에 <한글대장경>을 완역, 발간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월운스님을 빼놓고는 역경을 말할 수 없다"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월운스님에 대해 원민스님은 맘 속에만 지녔던 속내를 털어놓는다.

"찾아오는 불자들도 부담 없이 큰스님께 인사를 하고 갈 만큼 소탈하고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아요. 가식 없는 법담을 베풀다 보니,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스님은 할 말은 가감 없이 털어 놓습니다."

봉선사 능엄학림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의 말도 전한다.

"큰스님은 학인들이 공부 안하고 다른 생각한다 싶으면 엄한 스승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강의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준비를 거르지 않지요. 절 밖에서 공양이라도 대접할라 치면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경전 한 장이라도 더 보겠다는 거지요."

원민스님은 '스승 월운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말한다.

"역경이라는 고된 작업에도 좌절하지 않고 40여년을 이어온 불굴의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만으로도 후학들에게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굳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큰스님께서는 행으로써 스승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현근스님

20년을 훌쩍 넘긴 출가전. 고등학생의 눈에는 만나는 스님마다 신기할 뿐이었다. 온화하고 따뜻한 서정적인 정서에서 서릿발 같은 기상에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독특한 스님들을 보면서 청소년기의 생각이 커가고 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만난 후 너무도 독특한 스타일의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현근스님도 그 중 한 분이다. 물론 출가전의 일이다. 그때 본 스님은 깡마른 체구에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삭발을 한 모습은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서슬 푸른 수행자의 전형이었다. 말을 많이 해서 전후좌우를 설명하시는 스타일도 더더욱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울산 해남사 불교학생회에 나온 학생들에게는 많은 사연과 추억을 남겨준 잊혀지지 않는 호랑이 스님이 되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노라니 어디선가 문을 활짝 열어 젖치고 들어오실 것만 같은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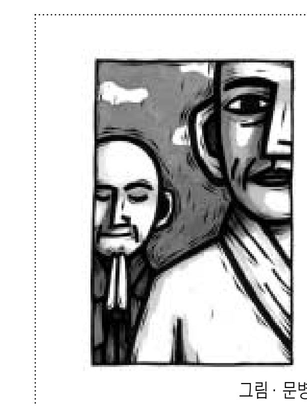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스님의 이미지 중에는 검정 고무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언제나 삭발을 막 끝낸 모습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옷은 헤어져 탈색된 남루한 누비가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겨울이 아닐 때에는 광목을 염색해서 주로 입고 다니셨는데, 단정하다기 보다는 이미 세상과는 먼 한 경지 오른 도인을 연상하게 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어찌나 좋던지 항상 흠모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스님들이 흰 고무신을 신고 계실 때 유독 검정 고무신만을 고집하는 스님의 마음에서 존경심이 일어났다. 그냥 왠지 멋져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당연한 모습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나도 출가 후 십 년 정도 지나 내 스타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는 검정 고무신만을 고집하고 있다.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안경도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정 뿔테 안경을 지금껏 끼고 있다. 입만 열면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세계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그때의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현대화도 생활화도 못하고 과거의 추억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스님의 멋이 겉모습에만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기억될 일도 없었으리라. 가끔 절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항상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해제하면 다시 절로 돌아오셨다. 한번은 몇 명의 학생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해인사를 갔었다. 날씨가 덥다고 느꼈는데 그때까지 누비를 입고 다니셨다. 그리고 7일 용맹정진을 하신다고 했다. 일주일 잠을 안자고 참선을 하신다며 자상하지 않은 특유의 말투로 이야기 하셨다. 한껏 기죽은 우리는 내심 탄성을 질렀다. 이처럼 자신에게 철저할 뿐 자상하지도 않은 스님을 왜 그렇게 따르게 되었는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랜 시간 스님과 함께 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절에 계시는 동안에는 언제나 학생회에서 법문을 해주셨다. 어느 날은 법문을 시작하시면서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 "면도날은?" 모두 의아해서 쳐다 볼 뿐이었다. 다시 물으셨다. "면도날은?" 학생회장이던 나는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도루코야!" 하시는 것이다. 어이없는 상황에 와르르 웃고 말았다. 한때 유행하던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광고 문구가 떠올랐다. 불교는 어렵지 않으니 엉뚱한 생각을 접고 단순하게 세상을 보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알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과묵 속 자상함 변함이 없어

자신에 철저, 후배들 큰 영향 받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 전 내가 통도사부산 포교원 소임을 살 때, 스님이 통도사승가대학 강주로 오셨다. 개인적으로는 반가움보다 어떻게 변하셨을까 하는 설렘이 더 컸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통도사승가대학을 운영해 가시는 방법이 그때의 서슬 푸른 호령의 기상이 그대로 살아있는, 강한 이미지 그대로였다.

첫째 학인들의 출입부터 엄하게 통제되었다. 학인들이야 못마땅할 일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바람직한 운영이었다. 그리고 승가대학의 기강이 서고 긴장이 느껴지는 수행자의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시자를 데리고 도량을 거니는 스님의 과묵한 모습은 25년 전 치열한 구도의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고집스러움과 편견을 넘은 완숙함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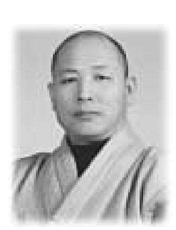
오늘 출가대중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현근 스님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변에 스님 같은 철저함으로 후학을 이끄시는 선배 스님들이 많이 계심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佛敎儀式(범음 · 범패) 학인 모집 [제1기]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기본기초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광쇠, 북) 다루는 법
1) 새벽도량석 2) 종성 3) 상단예불 및 행선축원 각단예불 및 불공의식
▶ 중급반(3개월) : 49제 의식, 시식, 배송, 구병시식, 전점안법, 상가염불 다비편, 천도 또는, 49제 영가축원 쓰는법, 전, 지의, 위패 만드는법과 쓰는법
▶ 작법반(6개월)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요잡바라, 법성게바라, 관욕바라, 화청
▶ 작법속성반 (수강시간을 연장하여 빠른시일 내에 완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합니다)
※ 매회 강의한 의식을 녹음하여 무료로 드립니다.(단, 법요집은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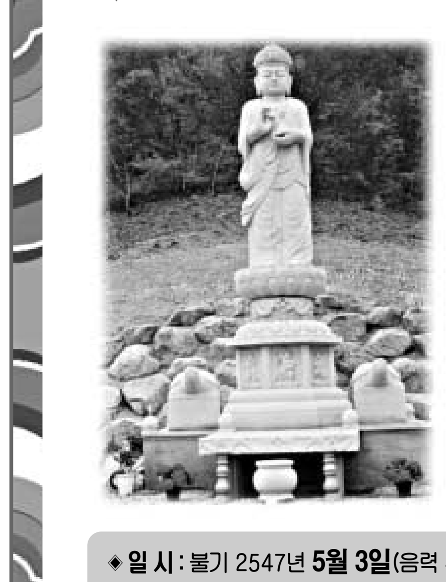


동현스님

▶ 각 과별 30명(선착순) ▶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
첫개강일 ▶ 2003년 5월 26일(월) 오후 2시
▶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준비된 수강신청원서에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반명함판 사진 3매(3×4), 주민등록 초본 1통을 본원 종무소에 제출하신 후 수업일정표(시간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전화 053)955-7725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본원은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법음 ·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원 교육을 졸업 이수한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성불하십시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7-14(2층)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봉 관세음보살 봉불식 축



귀의 삼보하옵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 소태동에 소재한 천명사는 화순읍 삼천리 학산(황새봉)에 새로운 관음기도 도량 학천사를 마련하고 **관세음보살 봉불식**을 거행합니다. 부디 뜻깊은 봉불식에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증장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5월 일
관음도량 학천사
회주 성관 주지 지명 합장
신도회 일동

◈ 일 시 : 불기 2547년 5월 3일(음력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학천사 경내
◈ 문 의 : 061)375-7632~3 / 팩스 : 061)375-7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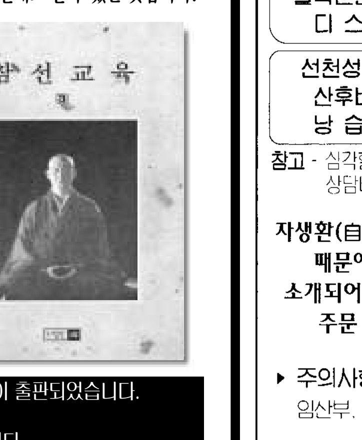
禪
참 선 교 육 (선수행입문서)
♪♬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裁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시 음식, 선사 백문 백답, 진제선사 수행문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신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선사 백문 백답, 원담선사, 정일선사, 영명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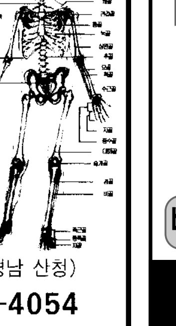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1대 ~ 80대까지 스님 일대기 (415쪽)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질 4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낱권 판매 가능 (15,000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 선방안내 : 하안거 5월 15일(음 4월 15일) 부터 9일 ◆ 안거비 : 9만원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 류마티스 / 초기 퇴행성관절염 / 혈액순환장애 /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 산후바람 / 냉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